

# 주장사파라...

⑦ 동산 스님의 '호통'



조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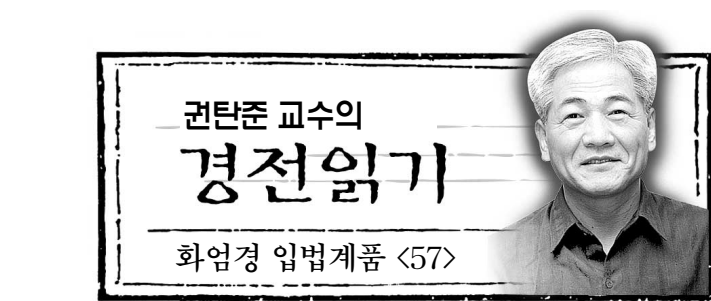


동산스님(1888~1965): 충북 단양 생. 범어사에서 용성 스님에게 득도. 한암·해일 스님에게 사교·대교 배우고 마하연·상원사 등서 정진. '설법제일' 선지식으로 통했다.

선재동자가 다음으로 찾아가는 선지식은 '대원의 정진력으로 일체중생을 구원하는 주야신(大願精進力主夜神)'이다. 그 주야신은 대중들 속에서 모든 공전을 나타내는 마니장 사자좌에 앉아 있었는데, 해와 달과 별의 빛을 그 몸으로 하여 두루 법계를 비추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을 두루 조복하는 몸·모든 선근을 닦는 몸 등 가지 가지의 훌륭한 모습의 몸(身)을 나타내고 있었다.

선재동자는 이러한 무량한 여러가지의 훌륭한 몸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선지식에게 열가지의 청정한 마음을 내었다. 그중에 서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내 몸과 같다고 하는 마음을 낸다. 나로 하여금 부지런히 노력해서 온갖 지혜의 도를 돕는 법을 마련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② 선지식에 대해서 자기의 업과 과보를 깨끗이 해준다고 하는 마음을 낸다.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여 선근을 내기 때문이다. ③ 보살행을 장엄하게 해준다고 하는 마음을 낸다. 나에게 모든 보살행을 빨리 장엄케 하기 때문이다. ④ 모든 부처님 법을 성취하게 해준다고 하는 마음을 낸다. 나를 인도하여 도를 닦게 하기 때문이다. ⑤ 큰 이익을 마련해준다고 하는 마음을 낸다. 나로 하여금 모든 보살의 법에 자유롭고 편안하고 머물게 하고, 온갖 지혜의 길을 이루게 하며, 모든 부처님 법을 얻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문에서 선재동자가 "이러한 마음을 내고는 저 주야신이 얻고 있는 여러 보살세계의 티끌 수 같이 많은 행(行)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이다. 즉 선재동자가 주야신의 거룩한 여러가지 모습을 보고 공경



## 권한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57>

대원정진력 주야신의 법문

### 법의 진실한 성품 이해하여 중생 교화

### 끊임없이 원 일으킬 때 보살행 정진 가능

하는 마음을 냄으로써 모든 세계의 모든 보살에게 공통되는 법(菩薩의 共法)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세계의 모든 보살에게 공통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체중생에게 두루 널리 선하고 자비로움을 베푸는 '보현행'이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바램(願)이며, 하시는 일(行)이다. 모든 세계 모든 보살에게 공통되는 법은 부처님들의 원행(願行)을 지극한 마음으로 염(念)함으로써 여실하게 증득될 수 있는 것이다.

선재동자가 이 해탈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자, 주야신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해탈문의 이름은 '중생을 교화하여 선근을 내게 함'이다. 나는 이 해탈을 성취하였으므로 모든 법의 성품이 평등함을 깨달았고, 법의 진실한 성

품에 들어가 의지함이 없는 법을 증득하였으며, 세간을 여의었으면서도 모든 법의 모양이 차별함을 알고, 또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것의 성품이 실답지 아니하여 차별이 없는 것도 분명히 통달하였으며 또한 한량없는 모양의 육신을 나타낸다.

또한 잠깐잠깐마다 이러한 빛깔의 육신을 나타내어 사방에 가득하여 중생들을 듣거나 가까이 모시거나 하여, 깨달음을 얻게도 하고 신통을 보게도 하고 변화를 보게도 하되 마음에 좋아함을 따라 조복시켜 착하지 못한 업을 버리고 착한 행에 머물게 한다. 선남자여, 이것은 큰 원력을 말미암은 때문이며, 온갖 지혜의 힘에 의한 때문이며, 보살의 해탈한 힘에 의한 때문이며, 크게 가없이 여기는 힘에 의한 때문이며, 크게 인자한 힘에 의한 때문으로 이와 같은 일을 짓는다.

선남자여, 나는 이 해탈에 들어서 법의 성품이 차별이 없음을 알면서도 한량없는 육신을 능히 나타내며, 낱날 몸마다 한량없는 모습바디를 나타내고, 낱날 모습에서 한량없는 광명 구름을 놓고, 낱날 광명에서 한량없는 부처님의 국토를 나타낸다. 낱날 국토에 한량없는 부처님이 나심을 나타내며, 낱날 부처님이 한량없는 신성한 힘을 나타내어 중생들의 지난 세상에 지은 선근을 열어 내나니 심지 못한 이는 심게 하고 이미 심은 이는 자라게 하고 이미 자란 이는 성숙케 하며, 잠깐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중생으로 아늑다라삼삼삭삭보리에서 들러가지 않게 한다."

위에서 설하고 있는 '중생을 교화하여 선근을 내게 하는 해탈문'은 일체법의 성품이 본래 평등함을 깨닫고, 모든 법의 진실한 본성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모든 분별과 집착을 떠나 중생들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가지의 모습을 나타내어 무량한 중생들로 하여금 발심 수행하게 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법을 설하는 것이다. 주야신이 한량없는 육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근본은 지혜의 힘이고, 대원(大願)의 힘이다. 특히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휴식이 없게 하는 데에는 대원의 힘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생을 교화하여 선근을 내게 하는 해탈문'의 법문에서도 원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선지식의 명칭에도 대원이 모든 보살행을 정진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보살행의 정진은 대원에서 나온다. 끊임없이 원을 일으키지 않으면 보살행의 정진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 네터즌 교리문답

###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문 지식(知識)과 지혜(智慧)는 어떻게 다른가요? (D '우리를 달콤한 낙대')

답1: 지식은 지식과 지혜를 나눌려는 분별심이며, 지혜는 지식과 지혜를 나누지 않는 본마음입니다. (D '김명강')

답2: 지식은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고 물으면서 항상 의문 속에 있는 것이고, 지혜는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고 묻는 것에 걸림 없이 답해 줄 수 있는 것이요. (D '사자별')

답3: 지혜로써 지식을 옳게 쓰는 사람을 성인(聖人)이라 하고, 지식으로써 지혜를 거러 급게 쓰는 자를 범부(凡夫)라 하는 것입니다. (D '조주')

답4: 지식이나 지혜나 하면서 지식은 나쁘고 지혜는 좋은 것이고 이렇게 편을 가르고 편식하는 것을 분별심이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 지식도 쓰고 지혜도 쓸 줄 안다면 이것은 보살의 마음, 반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도 지혜도 사실은 한 터럭도 반야를 벗어난 적은 없는 것입니다. (D '아베종성')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 선의 세계 31

### 불립문자(不立文字)-4

석가모니는 저술을 남기지 않았다. 대각(大覺)을 이룬 뒤 45년 동안 많은 설법을 했고 그것이 후세에 경전으로 편찬되었지만 그가 직접 글을 써서 남기지는 않았다. 아예 글을 쓰지 않았는지 아니면 쓰기는 했는데 보존되지 않았는지, 어느 쪽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아무튼 불교 문헌 어디에도 석가모니가 직접 글을 썼다는 얘기는 전혀 없으니, 아마도 안 했던 듯하다.

그리고 보니 앞에서 언급했듯이 칼 아스퍼스가 '축의 시대'라고 일컫는 때, 그러니까 인류의 고전문명이 형성되기 시작한 서력기원전 5세기를 전후해서 활동한 고전종교의 종조(宗祖)나 대사상이 가운데에는 저술을 안 남긴 사람이 많다. 석가모니보다 연배가 약간 앞선다는 자

지만 스스로 자기 사상을 글로 쓰지는 않았다.

예수도 글을 쓰지 않았다. 그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그 가르침을 기록한 이른바 복음서들은 모두 제자들이 쓴 것이다. 훨씬 후대의 인물이지만 이슬람의 종조 무함마드도 글을 남기지 않았다. 그가 받은 계시와 설교는 이슬람 성전 <꾸란>으로 집대성되었지만, 그것은 무함마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편찬된 것이다.

그리고 보면 고전종교나 고전사상의 대두 가운데에는 <도덕경>을 썼다고 하는 노자가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이 말은 많이 했어도 직접 쓴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 그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문

### 위대한 사상가들 대부분 글을 남기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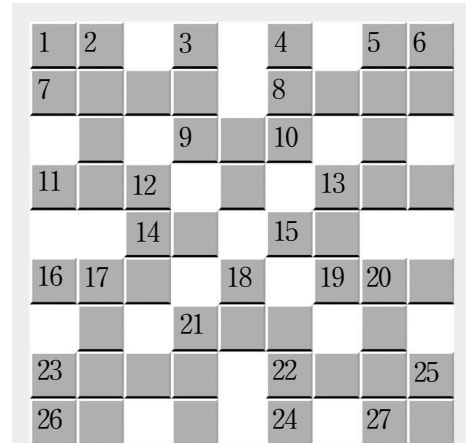
서들이 엄청난 마해비라도 글을 남겼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소크라테스도 저술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언행과 사상은 주로 제자인 플라톤의 저술을 통해서 전해진다. 플라톤의 <대화편> 등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늘 이런저런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인데,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 소크라테스의 면모를 오직 플라톤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으니 이를 두고 '소크라테스 문제'라고 일컫는 정도이다.

공자는 오경(五經)을 편찬했다고 하지만 이는 교육을 위해서 기존의 고전을 편찬한 것이고, 그 또한 자신의 사상을 직접 글로 써서 남기지는 않았다. 평생토록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러한 언행과 사상을 담은 논어(論語)는 그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는 평생토록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침을 주었

서들이 엄청난 분량이지만, 그 모두가 후대에 편찬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글을 쓸 줄 몰라

서 그랬을까? 어떤 영화를 보니까 글을 쓰는 것을 두고 '소리를 그림으로 그리 는 것'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요즘에야 문맹률이 극히 미미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능력을 습득한다는 것, 그 정도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겨우 몇 십 년 전만 해도 문맹률이 아주 높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터이다. 모 르긴 몰라도 2500년 전에는 더했을 것이 다. 하지만,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공 자가 글을 못 배워서 안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혹시 그들이 자기의 글을 남기는 일에 대해 뭔가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문제를 가지고 독자들들과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좋겠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정답은 26면에

## 상식퍼즐

### 가로

1. 은행 등에 돈을 들여놓을 5. 이승에서 악업을 지는 사람이 죽어서 간다고 하는 은갖 고통으로 가득 찬 세계 7. 춘부장 8.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 9. 마루부처님을 모신 전각 11. 지리산의 다른 이름 13. 쇠고기 맑은 국에 감자를 썰어 넣고 끓인 국 14. 선도(仙道)를 닦아 신통력을 얻은 사람 15. 가까이 재물을 내놓을 16. 충청북도 괴산군과 경상북도 문경시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 19. 관광을 목적으로 하여 짜여진 여행 단 체 21. 자치단체로서의 시의 의결기관 23. 검침의 부서 책임 검사 24. 화환전에 쓰이는 무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26. 공지(空地) 27. 압력배관.

### 세로

1.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이 무렵에 봄이 시작한다고 함 2. 임금부에서 죄인에게 매질을 하던 해레 3. 슬기와 인지와 용기를 아우르는 말 4. 부추로 만든 전 5. 야구에서, 투수를 대신하여 공격하는 타격 전문의 타자 6. 육중에서의 죽음 10. 광속의 마그마가 밖으로 터져 나와 퇴적하여 이루어진 산 12. 산을 밟아 수호한다는 신령 13. 물품을 검사하고 감정(鑑定)하는 관리 17. 구해군과 하동군의 경계에 있는 장터 18. 병을 잘 고치는, 이름난 의사 20. 한없이 넓고 커서 끝이 없음 21. 영화 개봉전 특 정대상에 미리 보여주는 행사 22. 문고(文庫)는 형식으로 쓰여진 23. 부인의 공덕 또는 공적 25. 대 기의 압력.